

# 2011

해외의료봉사 \_ 필리핀 3차 2011. 10. 1~8

## 멀리서만 보면 알 수 없는

# Nabotas



박지민 베네딕타  
부산성모병원 수술실(마취과)

10월 1일 비가 내렸던 Manila Aquino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18명의 의료 봉사자들. 이틀 전 이미 태풍으로 큰 나무가 뽑혀 쓰러져 있는가 하면 해변 돌이 파손되어 거리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으며 외교부에서는 위험 국가이니 긴급한 용무 외에는 모두 출국하라는 문자가 연속 오는 것이었다. 사실 입국하기 전날 Manila에서 한인 총기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황량한 Manila를 차안에서 보며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번 의료봉사지인 Nabotas는 Philippines 중심가 Makati에서 차로 불과 40분 거리에 있는, 다리하나 차이로 New York의 Harlem을 연상케 하는 마을이다. Tondo와 함께 나라에서도 지원이 없는 빈민층 중에 극빈민층이 거주하는 Nabotas는 쓰레기 매립지에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강보다 수위가 낮아 큰 비가 내리거나 만조가 되면 쉽게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필리핀 친구들도 차문을 꼭 잠그는 버릇이 생기듯 위험지역이라 한다. 아마도 그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그들이기에 배고픔에 잠시 이성을 잃고 본능이 앞서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Philippines 수도 Metro Manila에 위치한 곳이지만 골목골목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곳은 드물었다.

숙소는 Nabotas 마을 분위기와는 전혀 달리 파라다이스와 같은 San Lorenzo 성당 안의 유일한 사립학교인 Parochial Elementary School 안에 있었고, 짐을 풀고 난 후 도서관에 모여 간단한 인사와 OT를 하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아이들은 처음 본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며 손을 자기 머리에 올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한다. 가슴이 울컥거렸다. 나보다 저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하느님과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구라고 할 수 없는 마치 킴킴한 굴처럼 서로 엮히고 설켜 있는 닭장 같은 판자 집. 지붕만 가려진 이곳은 파식강의 오수가 흐르고 악취가 배어 구역질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오염도가 심각했다. 쥐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형광등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빨래를 하고 빨래를 말리고 밥을 하고 밥을 먹고 있었다. 한 평도 채 안되는 좁은 공간에서 6~7명이 살기도 하며, 개, 고양이, 닭도 더불어 생활하고 있었으며 찌는 듯한 더위는 이제 일상인거 같아 보였다. 이곳 사람들은 유독 음악을 좋아해 흥겨운 팝송을 크게 틀어놓아 이곳 분위기와는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흙탕물이 튀기는 골목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쉼터이고 잠자리이며 삶의 터전으로 보였다. 걸보기엔 우리나라 70년대, 혹은 80년대 판자촌과 흡사하지만 판자촌 안의 모습은 더욱 비참하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악취는 물론 오수가 다리 밑에 흐르고 있었고 전기가 일체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선풍기는 사치였다. 빗물은 그들에게 유일한 수도가 되고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아이들의 샤워부스였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태풍이나 폭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보였고 그저 지붕만 날아가지 않길 바랄뿐이었다. 최근 들이닥친 태풍에 의해 몇몇 집은 찢어진 천과 기둥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 보였다. 악취와 오수가 흐르고 전염병에 노출됐지만 끼니만 해결 할 수 있다면 파식강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고마울 뿐이었다. 이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의 우리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거리가 없어 직업이 없었다. 하루 50~200페소(1페소=28원)의 수익이 있는 가정은 상당히 부유한 층에 속하였다.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면 꿈쩍없이 전염병에 노출된다. 그래서인지 진료 때 수인성



전염병과 피부병이 유난히 많았다. 너무 가난해서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500m 남짓한 길 하나로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천여 명. 교육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던 이들 중 까막 눈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배움은 빈곤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했다. 가난한 이들의 영원한 도움이었던 Allen 신부님, 새로 보직하여 Nabotas를 이끌어갈 Patrick 신부님, 최영식 신부님과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수녀님들께서 San Lorenzo 성당에 수녀원을 짓고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급식 프로그램, 진료소를 운영하며 Nabotas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셨다. 수녀원을 지으면서 주민 대부분이 판자 집에서 사는데 수녀원만 좋아보여서 미안했다고 하셨다. 이곳 사람들은 “수녀님 수녀원 멋있게 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판자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지낸 기억도 만들어주고 싶어요”라고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루시아 수녀님은 눈가를 적셨다.

본격적인 진료를 위해 전산업무 습득과 한국에서 후원받아간 약들, 현지에서 공수한 약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았지만 현지 상황과는 맞는 약이 부족하여 진료 시 상당한 골머리를 앓았다. 하루에 500여 명의 환자를 일주일 내내보며 매일같이 밤낮으로 예제제를 넉넉히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약제팀, 진료팀, 간호팀, 행정팀 심지어 신부님까지 모두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빠른 시간 내에 무사히 일주일의 힘든 진료를 끝낼 수 있었다.

Nabotas 사람들에게 신발은 사치이며 옷은 남루하여 쥐구멍으로 들어오는 빛만큼이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 삶의 질은 세계 최하위지만 밝은 모습은 여전하며 행복지수는 최상이라는 누군가의 설명이 생각난다. 함께 갔던 일행 모두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과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며 루시아 수녀님 말씀처럼 Nabotas의 가난한 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기적의 꽃을 피워내고 쓰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튼튼한 집에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